# 자유를 찾아 나는 줄곧 헤매왔으니

## 秋日隨想
### ④ 니코스 카잔차키스와 붓다 下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의 위대한 스승은 호메로스, 단테, 베르그송" 이며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 에 나오는 말 "인간은 어떻게 그 자신을 영원하게 만드는가"를 평생 좌우명으로 삼겠다고. 뿐만 아니라 〈자서전〉에서도 "내 생애에 항상 나를 괴롭히고 채찍질을 한 단어는 언제나 '오름(상승)' 하나뿐"이었으며 오름과 투쟁은 동의어로서 '나의 투쟁은 나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한 투쟁' 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떻게 해야 영혼의 자유와 영성을 얻을 수 있는가 등의 명제를 놓고 평생을 씨름한 사상가요 진정한 구도자였다. 그의 오름의 발자취, 투쟁의 기록은 나무십자가 아래에서 빛나는 묘비명의 글귀 '자유' 였다.

과연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대해탈심 '자유' 가 될 수 있을까.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나 또한 염두에 두고 지내던 어느 날, 나는 눈으로 〈반야심경〉을 좇다가 "…모든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 닦아가나니 마음에 걸림이 없으며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는 '심무가애 무가애고 무유공포(心無 碍 無碍故 無有恐怖)' 에 눈길이 멎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한다. 걸림이 없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空)의 세계에서는 이렇다 할 실체도 없고 …아무런 얻음과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앎으로서였다. 나는 '무가애고 무유공포' 에 밑줄을 그었다.

그런데 니코스는 〈붓다〉서 다음과 같은 문답으로 자유와 구원에 대한 해답을 펼쳐 보이고 있다.

붓다가 말한다. "전에는 이토록 완전한 자유를 한 번도 얻지 못했노라. 그럼 나는 어째서 이런 자유를 얻었던가? 그것은 내가 커다란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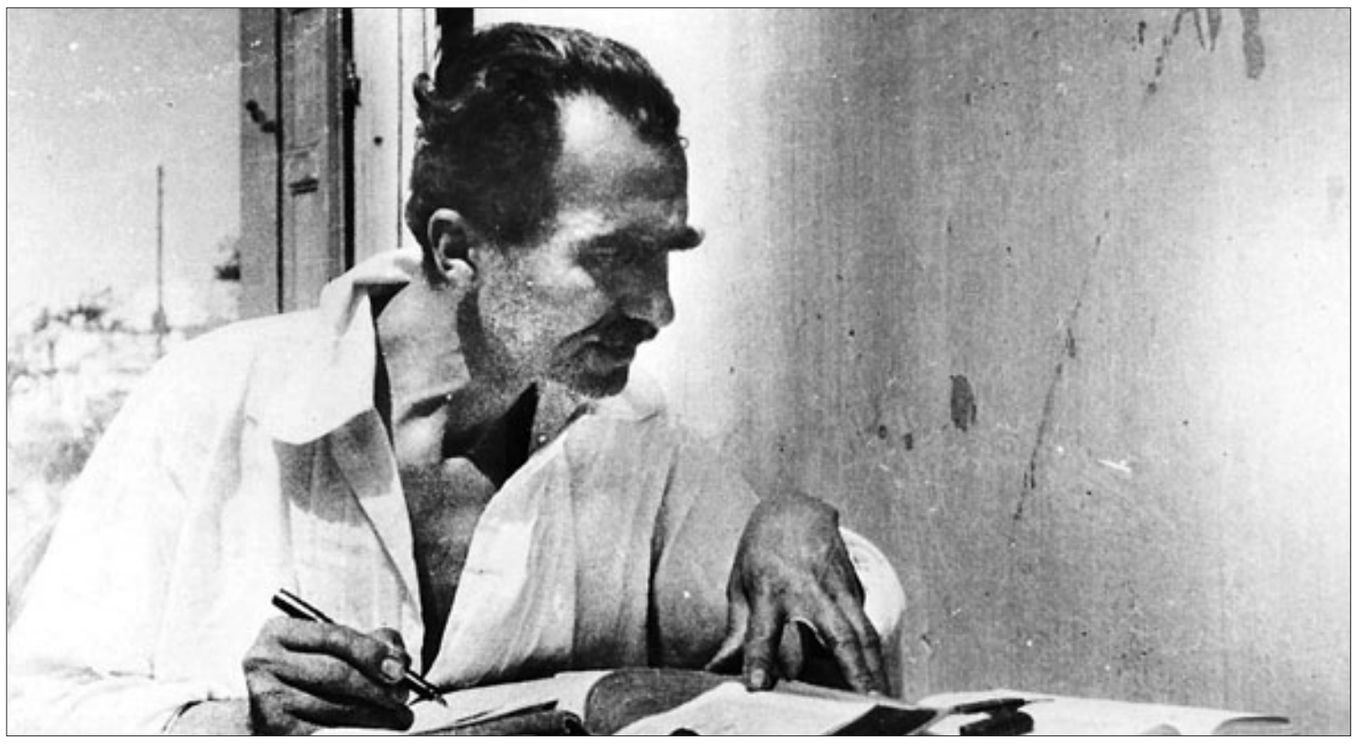
"어떤 결심이었나요?" 아난다가 물었다.

"나는 신에게 그대들이 신이라 일컫는 대상에게 내 영혼을 팔고 싶지 않으며, 나는 악마에게, 그대들이 악마라 일컫는 대상에게 내 영혼을 팔고 싶지 않다. 나는 누구에게도 나 자신을 팔고 싶지 않다. 나는 자유로다! 신과 악마의 발톱을 벗어난 자들은 행복할 지어다. 오직 그만이 구원을 받는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나요?" 사리푸트라가 물었다.

"구원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스승님,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더욱 좋다. 사리푸트라. 이해를 하면 넌 무서워하리라. 그렇기는 해도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자유의 형태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나는 구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 다른 모든 형태의 자유는 노예성임을 알기 바란다.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구원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자유를 얻으려고 싸우리라. (…)"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생전 모습. 그는 스스로의 본래자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천착한 자유인이었다.

붓다는 자비롭게 사랑하는 제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구원이란 모든 구세주들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그것은 지고하며 숭고한 자유이니, 인간은 거기에 이르면 숨이 찬다. 너는 인내하겠느냐? (나의 유일한 돌과 콘크리트인) 스물 넉자의 글자로 나는 구원으로 뻗어나간 새 길을 닦았다. 이제 나는 알았고 이제는 속지 않을 터여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차분하게 세상을 관조했다."
– 〈영혼의 자서전〉 2권 p482~485

'구원이란 모든 구세주들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므로 이제 나는 알았고 더는 속지 않을 터여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알았다. 심지어 그는 희망이 결여된 신앙을 가장 용감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희망이 없는 절대적인 자유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최고로 상정하였다.

신(神)이라는 대상에 영혼을 팔지 않으며 모든 형태의 자유는 노예성임을 알기 바란다는 〈붓다〉에서의 가르침은 니코스가 죽기 2년 전(72세)에 쓴 〈영혼의 자서전〉에 "모든 우상들로부터 자유를 찾으려는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었다"고 한 대목과 맞물린다. 어려서부터 그에게는 남다른 구석이 있었다.

그의 숙모의 집이 홀랑 타버렸을 때 처음으로 불을 구경한 그는 누가 목덜미를 잡아 집어던질 때까지 앞에서 깡충깡충 뛰며 춤을 추었다고 한다. 그리고 담임선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웃지 않기 위해 애를 먹었다니…. "마치 선생과 숙모의 집이 나를 짓누르다가 없어짐으로써 내가 풀려난 기분이었다"고 고백한다. 뿐만 아니라 마음속 우상이던 아버지 미할리스 대장이 사망하자 아내인 엘리니에게 적어 보낸 편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이제 우리에게 '초인' 은 희망이다.**
> **본성을 뛰어넘어 초인이 돼야 한다.**
> **신의 빈자릴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
> **'본래 부처' 작가가 말하는 메시지**

"(…)나를 아버지하고 결속시킨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갈라져버린 어떤 깊고도 굵은 뿌리였습니다. …이제 나는 마치 줄을 끊어버린 독수리가 된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잉태한 자가 사라졌으니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내 영혼은 힘차게 분출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 무엇이나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실은 나를 찢어놓은 안도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숨을 쉬기 위해 숨통이 찢어져 터져야 하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게 되듯이, 편안하게 숨을 쉬기 위한 자유였습니다(…)"

그에게 자유란 연결된 인연의 끈을 잘라버린 해방감이며 숨을 쉬기 위해 숨통이 찢어져 터지는 아픔이었다. 그는 '희망' 을 최후의 적이라며 그마저도 떨쳐버리려고 애썼다. 그의 대표작 〈조르바〉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한 갈탄 광산업이 망했을 때 바닷가에서 벌떡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하나님 망해버린 우리 사업을 보우 하소서! 마침내 거덜 났도다." 이 대목이 영화에서 안소니 퀸이 춤추는 장면이다.

"사업이 거덜 난 날, 세상에 거칠 것이 없는 자유인 조르바는 바닷가에서 춤을 추었고 책상물림인 나, 카잔차키스는 그 조르바를 그린 〈그리스인 조르바〉를 썼다"고 적고 있다.

또 어릴 때의 일이다. 건포도를 만들려고 햇볕 아래 널어놓은 포도에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하수도가 넘쳐 길바닥에서 물이 강처럼 흘렀다. 어떤 사람들은 저주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모를 불렀다. 나중에는 포도밭마다 올리브 나무 뒤에서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비에 흠뻑 젖은 이 꼬마는 기쁨을 감추려고 애를 쓰면서 집으로 달려갔다.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해서였다. 흐느껴 울까?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지를까?

"아버지!" 그가 소리쳤다. "포도가 다 없어졌어요!"

"시끄럽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우리들은 없어지지 않았어."

"나는 그 순간을 절대로 잊지 못한다. 나는 그 순간이 내가 인간으로서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위대한 교훈 노릇을 했다고 믿는다. 나는 욕이나 애원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으면서, 문간에 꼼짝 않고 침착하게 서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항상 기억했다. 꼼짝 않고 서서 재난을 지켜보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혼자만이 인간의 위엄을 그대로 지켰다"고 적었다. 훗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희곡 〈붓다〉에서 어르신 창으로 다시 태어난다.

자신의 인생의 향방(向方)을 정해놓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던 니코스의 글은 내게 무척 경이였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겸허해질 것이며 능력이 닿는 한 육체의 욕망들을 억제할 것이다. 육체가 잠을 자고 싶어 하는가? 나는 그대로 깨어 있을 것이다. 육체가 먹고 싶어 하는가? 나는 굶을 것이다. 육체가 앉고 싶어 하는가? 나는 일어나서 산을 오를 것이다. 육체가 추위를 느끼는가? 나는 발가벗고 자갈밭을 걸어올라 갈 것이다. (…)**

**육체를 정복한 다음에야 나는 영혼으로 관심을 돌릴 것이며, 나는 영혼도 보다 낮은 차원과 보다 높은 차원, 인간의 차원과 신의 차원,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눌 것이다. 독서와 명상, 승리의 기쁨, 정의, 우정, 온화함 그리고 슬픔 -나는 이성의 하찮은 기쁨들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이겨낸 다음에, 나는 다시 한 번 나 자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분리를 선언할 것이니, 최후의 적 '희망' 을 떨쳐버리고 위로, 높이 신의 불길과 더불어 치솟아 오를 것이며, 그 불길은 움직이지도 않고 연기도 내지 않으면서 깊은 어둠과 정적 속에서 나를 태워 없앨 것이다."**

–〈인간 카잔차키스〉1권 P71

'희망' 을 최후의 적(敵)이라며 그마저 놓아버린 사람, 그러니 무엇을 더 바랄 게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은 몸을 버릴 나이에 이르러서야 겨우 헛되고 헛된 소용없음을 알게 되었는데 니코스는 어린 나이에 그것을 체득하며 신에 대항하는 인간의 투쟁을 즉 '자유' 를 작품의 주제로 삼았던 것이다.

"나는 세상이 허깨비이며 사람들은 유령이요, 이슬의 덧없는 자식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자주하였다"는 그를 떠올려본다. 그때 "법에는 자성이 없고 다른 것으로 자성을 삼는다. (法無自性 依他爲性)"는 경전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그는 생래적으로 이를 것을 알았던 사람이다. 요컨대 그릇에는 자성이 없으니까 흙으로 자성을 삼듯 모든 것은 그것으로 만들어짐이 아닌 그것을 안 것이다. 무성(無性)이면서 연기(緣起)로 된, 실체 없는 그것을 안 이상 미혹에서 풀려날 수 있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속박에서 벗어난 대자유인, 그가 바라던 바 해탈된 초인(超人)인 것이다.

그가 니체의 초인과 만나 초인을 '인류의 희망' 이라고 부르며 한 말을 나는 잊지 못한다.

구원의 문은 우리 손으로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우리에게 '초인' 은 희망이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고 선언하고 우리를 심연의 가장자리로 데려다 놓았다. 인간은 마땅히 저 자신의 본성을 뛰어넘어 하나의 초인이 되어야 한다. 신의 빈자리를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

우리는 저마다 한 사람의 초인이 되어야 한다. '본래 부처임' 을 잊지 말라고 그가 내게 넌지시 말하는 것 같다.

**나는 자유롭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그것,**
**더 이상 나는 아무 것도 원하지 않는다.**
**자유를 찾아 나는 줄곧 헤매왔으니**
–〈나는 자유롭다〉에서



눈을 감고 그의 육성을 다시 듣는다.

맹난자 / 수필가


追慕

## 제 19회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추모 대재

귀의 삼보하옵고
(사) 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 태평양 전쟁 당시 희생된 한국인 희생자 21,709위의 추모대재를 봉행함에 있어 이 뜻 깊은 추모대재에 사찰 및 민간 단체, 개인 등 누구나 수희 동참하기를 앙망합니다. 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추모식은 1967년 (故)정기영 집행위원이 재단법인 부산영원설립을 사재로 설립을 하여 추모비를 설립하며 추모제를 시행하여 오던 중 1997년 부산시에 위임하여 위령제를 봉행하여 오면서 (사)대원불교조계종이 주관하여 태평양전쟁 한국인 추모제를 봉행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으로 이번 **'제 19회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추모대재'** 를 안내 하오니 추모의 마음을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래

■ 일 시 : 불기 2561(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10시
■ 장 소 : (사)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 문 의 : 봉행위원장 석혜오 총무원장 화남 (010-3562-2462)



•증 명 법 사 : 화산당 월인 대선사
•집행위원장 : 정산당 청봉 대선사
•봉 행 위 원 장 : 석혜오 총무원장
•집 행 위 원 : 홍섭. 보행. 원정. 덕오. 원명. 수오. 설산. 법현. 월오. 법경. 초오. 법주. 법진. 지광. 도일. 유심. 지혜. 화성. 현오. 법원. 지담. 도현. 지현. 해안. 우정 (무순)

•봉행위원 : 혜주. 정음. 성현. 성오. 법담. 진여. 혜원. 지현. 운오. 혜통. 진오. 능현. 혜광. 능각. 법일. 정은. 지용. 무공. 정진. 가견. 성보. 가능. 혜운. 법수. 동원. 만월. 법용. 연각. 법오. 가덕. 범일. 명오. 덕운. 대덕. 대연. 혜문. 보정. 광운. 도산. 수해. 운산. 원광. 해연. 해인. 광명. 대몽. 법성. 효선. 청명. 청공. 일월. 지원. 서정. 선혜. 무관. 선담. 무설. 서진. 해동. 청화. 대범. 연하. 황산. 해월. 태일. 현각. 덕봉. 법해. 법인. 법륜. 법전. 원오. 선공. 경민. 제웅. 정각. 도산. 용수. 무해. 효인. 도인. 대산. 진광. 일해. 송산. 성진. 현진. 윤하. 해오. 우담. 보명. 도도. 범오. 태봉. 문수. 광정. 수명. 능견. 청진. 보성. 성덕. 현산. 여일. 동선. 호일. 묵오. 진도. 혜명. 지성. 우초. 현암. 진명. 보각. 일성. 주연. 지종. 월행. 현운. 혜진. 일정. 지선. 동광. 자비. 범정. 보명. 지밀. 법완. 금오. 무오. 지우. 법호. 법승. 무진. 무유. 탄허. 무일. 무상. 빈여. 진여. 일타. 해산. 혜안. 석산. 만오. 봉산. 지운. 법공. 광덕. 우초. 태호. 진공. 동삼. 덕천. 효단. 혜림. 진명. 성문. 도혜. 동운. 법인. 대오. 해성. 무착. 영공. 영현. 송제. 법우. 정현. 달오. 어정. 정관. 청호. 석두. 대공. 묘훈. 도언. 성념. 오성. 해동. 정재. 해명. 지우. 문수. 승배. 도운. 혜명. 혜심. 법경. 경민. 국담. 경오. 현산. 정로. 보담. 정해. 법산. 무량. 향산. 성종. 성심. 성진. 정연. 성인. 성산. 고봉. 자운. 성관. 능소. 법민 (무순)

(사) 대원불교조계종 집행위원장 정산당 청봉 대선사 화남